

#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 흘린 뜻 아는가”

## 경허 스님 수행 일화

### ㉔ 수법제자 만공 스님

14세에 경허 스님과 맺은 법연으로 수법제자가 된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과 얽힌 일화를 가장 많이 남기고 있다. 오늘날 경허 스님에 대한 기록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만공 스님의 역할이 크다.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문, 시문, 오도송, 계문, 결사문 등을 분류해 문집을 만들었다.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의 법제자가 된 것은 18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만공 스님은 1884년 천장암에서 태허 스님을 은사로, 경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월면이란 법명을 받았다. 당대 선지식으로 널리 알려진 경허 스님은 운수행각을 위해 천장암을 떠날 때가 많아 배우고 익힐 기회를 얻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천장암에서 10년 동안을 부목과 공양주와 같은 고은일을 하며 보낸 사미승 월면은 23세가 되던 1893년 음력 동짓달 초하룻날 밤에 우연한 기회로 화두에 들게 된다.

월면은 천장암을 찾은 한 옛된 청년과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됐다. 얇은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쳐들어 절로 이불깃을 여미게 하는 밤이었다.

“월면 수와 주무십니까?”

깊은 밤 청년이 월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막 잠에 빠져들려 했던 월면이 청년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다.

“스님, 아직 안 주무시면 뭘 좀 여쭙어 봐도 되겠습니까?”

“나한테 뭘 물어보시려 하나구요?”

“예, 스님께서서는 출가하신지 오래되었으니까 알고 계실 듯합니다. 다름 아니오라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歸何處)’라는 뜻을 알고 싶어 그러합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그러나 월면은 그 말이 생소했다. 깨달음을 얻겠다고 출가해 10년을 가까이 절밥을 먹고 있었으나 그 말조차 처음 듣는 것이었다. 월면은 밤을 새우며 만법귀일 일귀하처에 대해 생각했다. 그날 밤을 꼬박 새운 월면은 결국 천장암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박 새운 월면은 결국 천장암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조주 화두에서 비롯된 이 공안은 월면이 타파해야 할 화두가 됐다. 날이 밝기 전 천장암을 떠나기로 한 월면은 법당을 향해 합장 배례로 인사를 대신했다. 천장암을 나온 월면은 가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절문을 나서는 것도, 아버지 같이 따르던 태허 스님을 떠나는 것도 월면에게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못했다. 월면의 더운 가슴은 진리를 깨우치고 말겠다는 구도자로서의 사명감만으로 버차올랐다.

어두컴컴한 새벽, 바람 하나를 어깨에 걸머진 월면이 걸어 도착한 곳은 온양 봉곡사였다. 월면은 봉

### “만법귀일 일귀하처” 초견성한 사미

“불속에서 연꽃이 피었구나”

경허 스님 점검후 ‘무’자 화두 참구

대오각성 ‘만공’ 법호와 전법계 받아

곡사 법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노전을 맡았다. 월면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화두 타파를 위해 응맹 정진했다. 그러나 화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럴수록 월면의 수행은 더욱 철저해졌다.

봉곡사에 온 지 두 해째 되던 해 초가를 새벽이었다. 면벽하고 있는 월면의 눈앞에 갑자기 벽이 무너져 내리며 찬란한 빛과 함께 큰 일원상 하나가 나타났다.

순간 월면은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다. 천장암을 떠난 2년 동안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화두가 월면의 가슴 깊은 곳에서 웅숭웅چه 올라와 타파된 것이다. 깨달음의 기쁨에 찬 월면은 다음 날 아침 대중들에게 밤새 자신이 겪은 것을 말했다.

“어보게, 내가 어제 갑자기 벽이 무너져 내리며 눈앞에 큰 일원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네.”

그러나 월면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미친 놈 취급을 할 뿐이었다.

더 이상 봉곡사에 있을 수 없게 된 월면은 떠날 결심을 했다. 월면이 달은 곳은 공주 마곡사였다. 마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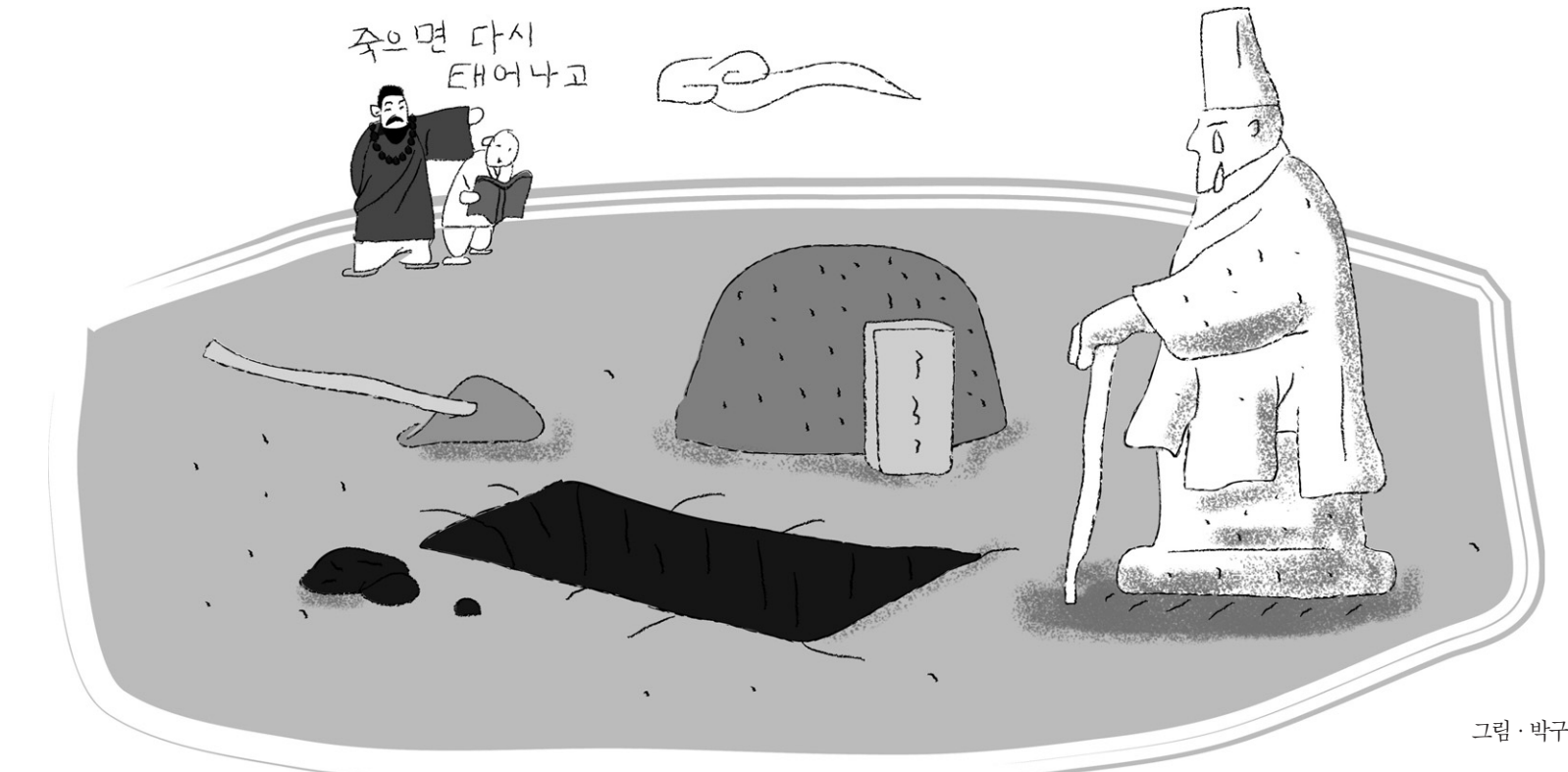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사에서 만난 보경 스님은 월면의 법기를 알아보았는지 행장을 꾸리던 월면에게 자신이 공부하던 토굴을 선뜻 내주었다.

월면의 정진은 마곡사에서 계속 됐다. 보임을 위해 토굴로 들어간 월면은 다시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잡고 공부했다.

마곡사 토굴에서의 보임 생활이 2년이 되던 해, 경허 스님이 월면을 찾아왔다. 그동안의 공부 얘기를 들은 경허 스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를 많이 했구나. 화중생연(火中生蓮)이라, 불속에서 연꽃이 피었구나”

말을 마친 경허 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등토시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인고?”

당시 무더운 여름이었다. 경허 스님은 옷 속에 등나무로 만든 등토시를 입고 있었다. 경허 스님이 등토시를 가리키며 물었다.

“등토시입니다”

경허 스님이 이번에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가

리키며 물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지?”

“예, 그 것은 부채이옵니다”

“그럼 여기 등토시 하나와 부채 하나가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고 하는 것이 옳겠느냐, 부채를 토시라고 하는 게 옳겠느냐?”

“토시를 부채라 하여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 하여도 옳습니다”

경허 스님은 다시 물었다.

“그럼, 다비문(茶毘文)을 본 적이 있던가?”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스님”

“그 다비문에 유안석인 제하루(有眼石人 齊下淚),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구절이 있거늘 이 무슨 뜻인고?”

월면은 그 구절을 알고 있었으나 뜻을 새기지지는 못하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 경허 스님의 주장자가 사정없이 월면을 내려쳤다.

“네 이놈! 그것도 모르면서 어찌 부채를 토시라

하고 토시를 부채라 할 수 있단 말인고?”

경허 스님은 당시 만공 스님의 깨달음이 활연대오(豁然大悟)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경허 스님은 월면에게 ‘무(無)자 화두를 주었다.

월면은 경허 스님이 떠난 후 토굴에 들어가 응맹 정진에 들었다. 그러나 월면의 화두참구는 진전이 없었다.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것을 중단한 월면은 경허 스님이 있는 부석사로 향했다. 월면은 1897년 법어사로 떠나는 경허 스님을 쫓았으며 이어 양산 통도사 백운암에서 정진을 계속했다. 어느 날 새벽, 월면은 법종소리와 함께 사람이 환해지는 것을 보았다.

월면은 두 손을 모아 합장 배례했다. 오랜 참구 끝에 얻은 깨달음이었다. 월면은 경허 스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 세 번 절을 올렸다. 수년 후 월면을 만난 경허 스님은 월면이 활연 대오했음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만공(滿空)이라는 법호와 전법계를 내렸다. 제자 만공을 바라보는 경허의 마음은 흐뭇하게 그치지 않았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구입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대한불교원효종 종도여러분께 알립니다.

저희는 대한불교 원효종 종단에서 오랫동안 수행정진을 해왔으며, 지금은 종단의 임원으로서 종단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단의 임원으로 일하는 동안 종단의 책임자이신 총무원장께서 종단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서 추락해가는 종단을 바로 세우고자 저희들이 종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히 장군축비를 들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총무원장의 비위사실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 종단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인내해 왔습니다만 지난날의 잘못된 과오를 참회해야 할 총무원장께서 적반하장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파사현정의 자세로 다음과 같이 총무원장의 비위 사실을 알리고 종도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 다 음 -

-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고왕사는 지난 2010년 12월 16일에 고왕사 창건주의 뜻에 반하여 K 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은 K 스님 으로부터 일금 일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바 종도들의 고소로 인해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혐의로 재판계류 중이며 검사구형(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2012년 5월 10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본래 원효종단의 사찰이었으나 본 종단의 관리 소홀로 인해 타종

단에 소속되어 있던 원주 소림사는 본 종단 종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본 종단의 소유로 귀속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총무원장은 위 소림사가 본 종단으로 귀속 되자마자 소림사를 담보로 해서 24억 원이라는 거액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종단의 재산을 지키려는 종도스님 몇 분이 원효종단의 구중 차원에서 본 종단의 총무원장을 고소하였으며 현재 춘천지방법 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3. 울산광역시 소재 남산사에 주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여 종도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4.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대정리 소재 보문사에서 지난 2010년 주지로 계시던 강철스님께서 임직을 했습니다.

그 후 종단에서는 새로운 주지스님을 발령해서 보문사를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급기야 본 종단과 전혀 무관한 속인이 보문사를 점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종도들이 현재 보문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해서 보문사를 되찾자고 총무원장께 여러 차례 건의 했으나 총무원장은 이를 묵살함으로써 현재 보문사를 점유하고 있는 자와의 담합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5. 2008년 7월, 당시 분열된 종단의 임시총정 소임을 맡고 있었던

김순석(용일)과 임시총무원장을 맡고 있던 김윤철(향운) 등은 전국각지에 산재한 원효종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양자가 25억 원씩 분배하기로 합의를 하여 인증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이처럼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루어질 수 없이 많은 비리들을 저질러놓고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염려한 총무원장이 갖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종단 감사를 회피해오고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종단 감사권을 갖고 있는 규정원장을 수년째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위와 같은 총무원장의 비리를 척결하고 종단을 바로 세우고저 저희는 원효종단의 종도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종도여러분들은 흐트러져 가는 본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바로 세우고 종단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56년 5월 11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경주 망월사

불기 2556년 4월 28일

**알리는 이 - 대한불교 원효종 소청심사위원장 한 상 렬(심상)    합장**  
**총 무 부 원 장 이 종 도(명운)**